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문화일반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바란다

culture 'art

우리나라 예술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현장민간인 '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년 간의 산고 끝에 설립되었다. 이는 보수, 진보로 나뉘어졌던 현장예술계가 비록 다른 목표를 지녔지만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게 요구하였고, 또한 거시적인 정부정책과 부합된 결과이다. 이제 힘을 모아 예술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술계 내부를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가운데 예술을 옹호하는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김세준
- 예술경영가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과연 누가 무엇을 얻을까?

대부분의 정치행정학자들이 동의하는 정책연구의 대상으로 '누가 무엇을 얻을까'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32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 11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심의 예술위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현 정권의 기존 정부단체를 민간자율기구로 이전하는 공약사업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예술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현장민간인 '자율기구'인 예술위원회가 2년 간의 산고 끝에 설립된 것이다. 이는 보수, 진보로 나뉘어졌던 현장예술계가 비록 다른 목표를 지녔지만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게 요구하였고, 또한 거시적인 정부정책과 부합된 결과이다. 하지만 위원회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룬 지금 예술계 내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권을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분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체계정비에서 갈등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미래지향적인 예술지형도 창안으로 이끌기 위한 원칙을 점검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공동체의 자율성은 어디에서 오나?

예술공동체의 자율성은 국가나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물론 제도로서 자율성이 최종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기초예술살리기'라는 이름 하에 순수예술계 생존위기를 널리 알렸듯이 현재 예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사회와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예술계는 작가 개인으로서, 고유한 개별작품으로만 소통하고 매개방식과 유통경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였다. 한편 기술과 자본의 첨예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예술계, 예술인, 예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예술이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도 사회적 가치획득을 위한 타 분야와의 경쟁이 요구된다. 예술이 문화산업의 문화콘텐츠로서 수출을 통한 보국, 경제적인 가치로만 계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예술 자체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 많은 사업들이 시급하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창의한국'은 창의적인 시민, 지역공동체, 국가를 이루기 위해 예술의 창의성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재원의 공적재원의존도(30~45%)와 강한 민족적인 색채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닌 캐나다의 자치주인 퀘벡주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퀘벡주 문화성 1992년, 「퀘벡의 문화정책: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미래」 '예술위원회설립을 통한 예술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라는 글을 찾을 수 있다. 저명한 문화정책학자인 케빈 물개히의 논문인 「공공문화와 정치문화: 퀘벡의 문화정책」에 의하면 퀘벡주 문화정책 목표의 대상은 개인, 예술공동체, 사회로 나뉘어 있다. 현 창의한국의 문화정책과 비교하여 '예술공동체'가 강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예술공동체'를 단순히 문화사회복지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술을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병이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공적자금의 개입필요성을 역설한 바우물과 보웬의 이론만으로는 매달라 있는 예술재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변화하는 외부적인 환경을 수용하여 새로운 예술을 혁신적으로 창안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로 여겨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오늘의 다원예술이 내일의 순수예술로 변모할 수 있는 예를 서양중세 대중음악의 고급예술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술의 사회적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에서 온다

예술위원회의 전문성은 단순히 현장예술인의 지원분야에 대한 친숙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보다는 현재 과도한 지원사업 심의를 심사위원의 직관에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사무처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반영하여 현장예술계의 미래를 담보하여 지원사업을 '해석' 하는 것에 있다. 투명성도 단순히 회의록 공개 등 오히려 자율적인 토론을 막게 되는 장치보다는 오히려 윤리 강령에 따른 심사원칙과 지원결과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국산 최신 전폭기의 구매가격은 대당 약 10억 달러 (약 1,000억 원)로 추산된다. 내년도 예술위원회의 예산은 약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절대적으로 새로운 예술단체와 작가가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원회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위원회 위원은 스스로를 각 분야의 지원사업기금 배분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창조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적인 생산, 유통, 소비를 증진하는 창조인으로 여겨야 한다.

금년 창설 4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성공요인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먼저 NEA가 예술계와 일반 시민, 타 부처로부터 대표적인 미국예술정책의 상징성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연동재원(Matching Funds)제도를 도입하여 지원기금의 과급성을 높였고 우리나라의 소액다건 원칙에 근거한 부처간 중복지원금지와 달리 경쟁 하에 여러 공적, 민간재원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다. 두 번째로 개인작가 지원사업을 단체 지원과 병행하여 개인 작가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한 점이다. 이는 NEA의 중요한 업적인 미국현대예술을 세계적으로 아방가르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인 기획지원 프로그램 수립이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무처의 각 예술분야 감독의 역할이 매우 컸다. 네 번째로는 지역예술위원회와 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정치적인 지원네트워크 조성이었다. 다섯 째로는 노동정책에서 예술, 교육, 산업정책으로 변모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정책이었다. 위와 같은 성공요인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공에 시사점이 된다. 또한 지역과 민간에 또 다른 재단이나 위원회 설립을 제도적으로 옹호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퀘벡주의 예를 들면 공적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1년 지원이 아닌 3년 지원사업을 제안해 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예측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비전의 공유

위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실제 변화와 혁신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환경이 조성되고 나서야 이루어진다. 임기 중 위험을 적절히 감수하여 점진적인 변화 가운데 새로운 예술지형도의 혁신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도 예술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술계 내부를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가운데 필요할 경우 예술을 옹호하는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예술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예술은 우리를 자신과 남에게 보여주며 이를 통한 내적인 비전은 국가를 인도한다. 이러한 비전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1965년 미국의 린든 존슨대통령 NEA 설립 기념사 중.